

조합원들의 열망은 실질적인 임금인상이다!

- 2012년 임단협을 바라보는 입장 -

정년연장? 정년보장이 우선이다!

지난 7월 10일에 현 노동조합은 201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회사측에 요구하며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였다. 현재 노조측 요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지만, 공약사항인 '정년연장'을 핵심적인 교섭안으로 제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홈페이지에 올려져있는 교섭요구 공지글에 포함된 삽화에서 '정년연장'이라는 문구가 강조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2012년도 임단협의 핵심요구 사항이 '정년연장' 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구심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정년연장이 반드시 나쁜 요구인 것은 아니다. 정년연장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안으로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kt에서 사실상 정년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kt노동자들의 정년은 58세로 규정되어 있지만, 민영화 이후 주기적으로 진행된 강제적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 무력화된지 오래다. 10년전부터 kt에서는 정년퇴임

식이 없어지고 노동조합에서조차 나몰라라 하고 있는 현실도 이런 현상의 반영이다. 이는 회사에 의해 지속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어서인데, 작년에 전직관리자의 양심선언을 통해 그동안 자행되어왔던 '부진인력 (일명 CP) 퇴출프로그램'의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난 바 있다. 아울러 1,002명에 달하는 CP인력 명단이 폭로되고 KT본사에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바도 있다. 그런데도 현 노동조합은 이런 회사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안하고 있어 한통속이 아니냐는 비아냥을 사고 있는 현실이다.

커져가는 임금인상에 대한 조합원의 열망

한편으로 점점 더 동종업계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임금수준에 대한 불만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10여년간의 임금인상율을 보면 불가상승율에도 못미치고 있어 실질임금은 사실상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아래표) 이는 지난 10여년간 노조가 임금인상을 따낸 적이 거의 없고 임금동결에 수시로 합의해 온 결과인 것이다.

최근 회사 포털인 'kate'에 개설된 열린토론방에는 kt의 임금수준에 대한 불만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는 것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건비총액(억)	22,079	22,051	18,203	18,786	20,033	19,604	20,124	19,587	19,885	18,265	18,636
인건비/매출(%)	19.17	18.83	15.73	15.85	16.87	16.65	16.86	16.62	12.50	9.03	8.47
평균임금(만원)	5,010	5,015	4,830	4,980	5,274	5,188	5,382	5,455	5,523	5,867	5,827
평균임금증감(%)	-	0	-3.0	3.3	5.9	-1.6	3.7	1.3	1.2	6.2	-0.7
전산업 협약 임금상승율	6.0	6.7	6.4	5.2	4.7	4.8	4.8	4.9	1.7	5.2	4.9

*출처 : 금융감독원 kt사업보고서 (2010년도 임금인상율은 상대적으로 고임금이었던 KTF와의 합병효과가 반영된 결과임, 2011년도 평균임금은 상무보의 임금도 포함되어 산출한 결과임)

을 볼 수 있다. 오죽하면 월급은 오를 일이 없으니 월 2천원씩 월급에서 공제되는 '사랑나눔기금' 이라도 탈퇴해야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직원들의 공감과 함께 쓴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7월 한달에만 대여섯개의 글이 임금수준에 대한 불만과 임단협에서 임금인상 요구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

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폭발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kt에서는 이러한 당연한 상식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심지어 이번 임단협에서 정년연장을 댕가로 '임금피크제' 또는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 복지 분야에서의 후퇴를 가져올 모종의 합의를 회사측에 상납하려는 건 아닌지 많은 조합원들이 의구심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동안 고과연봉제 도입과 같이 조합원의 등에 칼을 찌는 합의안을 회사에 상납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임단협 게시자료

피와 땀

kt노조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제발 임금 좀 올려달라는 조합원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 이번만큼은 정말 싸울 의지를 가지고 좀 협상에 임해달라. 화물연대노조가, 건설노조가 싸울 의지와 힘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요구안을 따냈다.

kt는 작년에 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둔 기업이다. 이는 kt노동자들이 수십명이 죽어가면서까지 업무와 실적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에서, 그야말로 kt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성과일 것이다. 이러한 영업이익의 절반이상이 고배당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임원들은 고액연봉으로 배를 불리는 동안 kt노동자들만 찬밥 신세였다. 이러한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kt노동조합이 그 역할을 못한다면 오히려 스스로 물러남이 맞을 것이다.

개그콘서트 '네가지' kt버전

kate내 '열린토론방' 에 올려져 폭발적 호응을 받은 풍자글

열린토론방 게시물 조회

제목	네가지 (찬양: 50/인기: 0)		
카테고리명	새내		
게시작성일	2012-07-19 00:00:00		
작성일	2012-07-19 18:33:38	수정일	
등록자	네가지	조회수	9497

1. 인기없는남
 kt가 늘 인기 없는줄 알아?
 신입채용땀 인기 많다.
 다 끌어다 붙여서 초봉이 3600이다.
 단.. 오해하지마라.. 10년후도 별반 차이 없다..

2. 촌티나는남
 우리는 뭐 시골살아서 맨날 김치에 밥만 먹다가..
 투표전에만 2만원짜리 먹는줄 알아?
 우리도 N뺑해서 종종 먹는다.
 마음만은 GWP 다..

3. 키작은남..
 LTE 속도는 빠름..
 물가는 계속 오름..
 우리 연봉은 적음..
 이정도 일했으면 좀 더 받아도 되잖아?

4. 똥똥한남
 너는 탐궁전 살고 검은차 타면서, 맘에 안들면 나가라고?
 개돼지처럼 부리더니, 이제 정말 누굴 개돼지로 보나?
 오해하지 마라.
 내 지갑은 훌쩍하다..

댓글(총 11개)

본 게시물 2012-07-19

1. 인기없는남

Kt가 늘 인기 없는줄 알아?
 신입채용땀 인기 많다.
 다 끌어다 붙여서 초봉이 3600이다.
 단.. 오해하지마라.. 10년후도 별반 차이 없다..

2. 촌티나는남

우리는 뭐 시골살아서 맨날 김치에 밥만 먹다가..
 투표전에만 2만원짜리 먹는줄 알아?
 우리도 N뺑해서 종종 먹는다.
 마음만은 GWP 다..

3. 키작은남..

LTE 속도는 빠름..
 물가는 계속 오름..
 우리 연봉은 적음..
 이정도 일했으면 좀 더 받아도 되잖아?

4. 똥똥한남

너는 탐궁전 살고 검은차 타면서, 맘에 안들면 나가라고?
 개돼지처럼 부리더니, 이제 정말 누굴 개돼지로 보나?
 오해하지마라..
 내 지갑은 훌쩍하다..



누구를 위한 에너지절약인가?

올해는 예년과 달리 더위가 일찍 찾아왔다.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가뭄과 함께 시작된 찜통 더위에 냉방장비로 인한 전력사용이 늘어났고, 이는 결국 전력 예비율을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려 전력공급 부족에 따른 단전이 우려되면서 에너지 대란의 불안까지 불러왔다.

결국 정부는 전력 공급의 안정화를 위하여 전력 공급의 이른 확대와 함께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냉방온도 28도 제한과 피크시간대 냉방기 가동 중지, 불필요한 전등 소등 등 전국민적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을 진행하였고 혹서 모를 전력 공급 중단에 따른 대비 훈련까지도 진행하였다.

kt 역시 에너지 절약실천을 함께 하기위해 이른 더위 속에서도 사무실 및 식당 에어컨 가동을 중지하고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 단축 및 불필요한 전력사용을 줄이기 위한 전등 소등은 물론이요 화장실 조명 낮추기 및 비데 사용 중지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국사 외 시설 에어컨가동 중지등 시설, 장비 부분에 대한 경우는 일단 논외로 하자)

이러한 에너지 절약 실천은 직원들의 근무 활동에 커다란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음에도 대다수의 직원들은 에너지 절약 실천의 의미와 취지에 수긍하며 묵묵히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전기 에너지의 대부분을 석유 수입을 통한 화력발전과 또한 미래를 담보로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써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 절약문제를 개별 기업에서의 비용 절감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기업은 철저하게 이익을 중심으로 놓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 간단하게 말해 최대한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투여된 비용과 매출 대비 비율에서 매출을 획기적으로 올리든 아니면 비용을 줄이려 한다.

최근 kt의 경영현황을 보면 매출의 성장보다는 비용

절감을 통한 이익 기여도가 상당히 높이나타나고 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만큼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과 노동강도 강화, 임금 인상 억제 복지 축소 등을 통하여 매출 향상의 부진과 한계를 극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고스란히 해당 직원들의 희생과 고통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현재 케이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에너지 절약 실천 역시 본질은 이익 증대를 위한 비용절감 차원의 문제이며 당연히 직원들의 노동조건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직원들의 의사는 물론이요 직원의 대다수인 조합원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과의 어떠한 협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사소한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모두 알다시피 현재의 노동조합은 조합원 권리와 이익 보다는 회사의 지침이나 요구를 따라 성명서 발표하기 바쁜 상태라 딱히 뭐라 요구하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라면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이 후퇴 혹은 개악된다면 최소한의 대응은 해야하는 것 아닌가? 백보 양보해 그것이 기업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고 케이트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동참(?) 해야할 경우라면 직원들이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만들어낸 에너지 절감/ 비용 절감 부분에 대한 이익은 이번 임, 단협에 반영되어 임금인상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인가? 아예 노동조합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조합원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다.

이제 여름이야 시간이 지나 선선한 바람불면 더위는 물러가겠지만 그다음에 올 겨울 추위 걱정에, 또다시 시작된 상품 강매에 직원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그나마 사계절이 있어 봄, 가을 잠시라도 더위와 추위를 잊게 해준 나라에 태어난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집 팔고 장롱 속 예물까지..... 다 팔아 어디 쓰나?

- kt의 계속되는 자산매각 문제이다.

작년에 kt가 자사 건물 20개를 4,703억에 팔았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매스컴의 보도를 통해 접한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케이티는 지난해 12월 말 서울 용산사옥 등 20개의 건물을 매각 후 재 임대(세일앤리스백)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10년간 책임 임차료 조건으로 건물 매각 가의 7.5%를 1년 임차료로 내기로 했고 계산에 따르면 10년간 총 임차료가 약 4,044억에 이른다는 기사 내용이였다.

이 기사를 접한 많은 조합원들은 대부분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였다. 부동산 매각을 통한 단기적 이익 실현은 회장의 연임을 위한 실적 맞추기였다고 생각 하는 조합원들이 대부분이다.

한편 현찰이 아닌 자사주라도 임원 94명은 올해 5월 자사주상여금을 지급받았다. 이석채 회장이 1만1천703주를 받았으며 사장단은 2천24주를, 부사장단은 667주 등 다양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이석채 회장은 연임 당시 향후 3년간 주당 최소 2,000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그래서 일까? 올해는 유휴동케이بل 매각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 KT에 매설되어 있는 통신 선은 약 45만 톤, 자산가치는 약 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 중 1조원의 구리 통신 선을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유휴 동케이بل 철거 및 매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케이블을 광케이블 기반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광 기반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철거 하는게 맞다는 것이 특별기동팀 직원들의 의견이다. 광기반 구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케이블에서 동케이블로 퍼 옮기며 철거를 강행하는건 차후 또 다시 시설을 재투자해야 할 우려도 있고, 고장발생 및 품질 저하의 우려 또한 있다는 것이 직원들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휴케이블 철거를 주별/월별/기관별 실적관리까지 하며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지역 마케팅단마다 철거량과 가격목표를 정하고 휴일근무까지 하며 철거를 하고 있다. 적게는 약 35억 원(울산마케팅단)에서 많게는 약 320억 원(서울북부마케팅단)까지 총합계 약 1,68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마다 건물 매각과 지하에 매설된 “구리” 통신선을 모두 팔아 버린다면 우리의 자산은 얼마나 남는 것일까? 많은 조합원들이 kt의 미래를 걱정 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동케이블 매각자금은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투자에 사용하겠다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민영화 이후 축소되어온 현실에서 이는 어차피 필요했던 투자이니만큼 동케이블 매각을 무리하게 추진해서까지 해야 될 것은 아닌 것이다.

이석채 회장이 3년 임기 동안 약속한 주식 배당금을 맞추기 위해선 매년 약 5천억 원의 비용이 지출되며 그 중 3천억 원은 외국인 주주들에게 빠져 나가게 될 것이다. 혹시 이것이 건물도 팔고 통신케이블도 팔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노동조합은 우리의 자산매각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고 이석채 회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야하지 않을까?

2011년 건물 매각 현황

지사	매각가(원)	지사	매각가(원)	지사	매각가(원)	지사	매각가(원)
용산지사	1,018억	신촌지사	354억	강동지사	520억	공릉지사	288억
노량진지사	584억	홍제지사	91억	중랑지점	181억	가좌지사	178억
청량리지사	204억	공향지사	165억	해운대지점	355억	청룡지사	20억
영도지사	44억	수성지사	78억	울산지사	96억	마산 내서지사	41억
진주지사	43억	소사지사	122억	단대지사	265억	동안동지사	46억
누계							4,703억

심야노동 철폐와 불법파견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화를 위한 금속노조 파업은 정당하다!

금속노조가 7월 13일 “사상 최대 규모의 첫 산별파업”에 나선 데 이어, 20일에도 주야 4시간 파업을 벌였다. 그러자 재계와 보수언론은 이 투쟁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들갑이다. 그러나 재계와 보수언론이 언제 경기가 좋을 때는 노동자 파업에 호의적이었던가? 끝없는 이윤 경쟁과 탐욕으로 위기를 불러온 자본인들이 노동자들에게 허리띠를 졸

“고소득 노조” 파업은 안 되나?

특히 이명박이 또 구역질나는 얘기를 꺼냈다. “고소득 노조(금속노조)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 어려운 계층은 파업도 못 한다.” 그러나 도대체 1퍼센트의 대변자로서 “어려운 계층”에게 고통을 전가해 온 자는 누구인가. 지난해 8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진정한 “고소득” 귀족은 누구인가. 바로 이명박과 정몽구다. 이런 자들이 노동자들더러 “고소득 귀족노조” 운운하는 것은 기가막힌다.

물론, 현대차·기아차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은 다른 노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이것은 오랜 투쟁 속에 쟁취한 정당한 성과다.

무엇보다 이런 대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끌어올린다는 게 중요하다. 벌써부터 현대 계열사 부품업체들은 현대·기아차 투쟁의 확산을 우려해 서둘러 양보안을 제시하며 노동자들을 달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말한 “금속노조 파업의 낙수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금속노조 파업이 심야노동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면, 더 넓은 층의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재계와 조중동이 현대·기아차 노조의 금속노조 파업 동참에 발작 증상을 보이는 이유다.

경제가 어려운데?

저들은 또 ‘경제가 비상 상황인데 왜 파업’이라며 호

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자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긴축 정책은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도, 노동자·민중의 삶을 개선하지도 못한다는 점이 이미 드러났다.

‘정치파업’ 이 문제인가?

재계와 보수언론은 금속 노동자들의 ‘정치파업’ 이 문제라고 집중적으로 두들긴다. 하지만 저들은 노동자들의 경제 투쟁에도 “집단 이기주의” 운운하며 십자포화를 퍼붓지 않았던가. 보수언론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정치’는 정치인과 자본가들이 할 일이지, 노동자는 감히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정치’ 투쟁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저들의 재벌·부자 ‘정치’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정부를 상대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전국적인 저항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정의로운 행동이다. 지금 금속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는 심야노동과 비정규직 차별에 맞서 99퍼센트의 열망을 대변하고 있다.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4년 만에 싸움에 나서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 속에서 투쟁의 가능성을 찾기 시작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 금속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 이것은 ‘이명박 5년간 빼앗긴 권리를 되찾자’는 민주노총의 8월 ‘정치파업’ 에도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kt노동자들도 금속노조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연대행동을 통해 이 싸움이 승리로 이어지도록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불법 해고자의 복직 전쟁 스케치 - 해고자 원병화

※ 중노위의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 판정이 유효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 과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닌 불법해고라 표현하고자 한다.

필자가 2011년 6월23일 어깨인대 파열 사고로 수술 후 통원치료를 하던 중에 당시 소속팀장이 집에까지 찾아와 징계출석통지서를 건네려 하였다. 병가 중이므로 병가 종료 후 날짜를 지정하여 주면 출석하겠다고 하고 반려하였으나, 내용 증명 우편으로 징계출석 통지서를 보내왔다. 이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병가 종료 후 소명 자료 등을 확보하여 출석하겠노라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이후 2011년 6월30



일자 해임의결 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도착하였다. 한 노동자를 병가 중인 2011년 6월 30일까지 해임시키지 못해서 안달 났던 불편한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지난 기간 회사 내에서 해왔던 비판적 활동이 KT의 낙하산 경영의 걸림돌이라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억압 경영의 예고였을까? 그것도 아니면 CP의 엄연한 존재를 과시하기 위한, 일부 하수인들의 몰염치한 보직 유지용 행패였을까?

2008년 노동조합위원장 선거과정에서 적발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벌금형이 내려졌었다. 이후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KT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려 하였으나, 당시 지사장을 비롯한 십수 명이 새벽부터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에 3차례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나 지사장과 같이 있던 십여 명의 직원들은 경찰의 공무집행조차 무시하면서 주주총회 참석 방해 행위를 저질렀고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도 있다. 내가 주주총회 참석을 통해 이석채식 KT 경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전달하려 한 정당한 행위를 회사는 달갑게 여기지 않은 모양이다. 현재 대법원에서까지 인정한 부당전직 문제, 우리사주조합장 입후보 등록 요청, 복수노조활동에 대한 사실상 보복적인 불법 인사권 남용 등에 맞선 필자의 투쟁은 불법적인 회사의 전횡에 맞선 합법적 전쟁

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의 부당전직 판결은 내근과 외근, 기술과 영업 간의 전직은 정당한 이유의 존재와 절차가 엄연히 선행이 되지 않아 발생한 노동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행위임을 명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KT는 영업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판결을 무시하

기라도 하듯이, 영업과 기술을 한 파트로 묶어 놓았다.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개인 능력 향상과 이를 통한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잦은 직무 전환으로 적응을 하지 못하여 스스로 KT를 등지게 하는 비인간적인 꼼수 인사라 할 것이며,

비열한 인력퇴출프로그램(CP) 및 살생부 관리에 한 점의 반성도 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고 있다 할 것이다.

지금 현재 KT의 모습은 눈과 귀와 입을 의도적으로 막고 이와 정반대로 돌진 하는 것 같다. 이래선 안된다. 헌법과 법률을 회피하려만 하지 말고 이에 걸 맞는 경영을 해야 한다. 불법, 부당, 출혈 경쟁이란 전쟁을 선포 해 놓고 KT와 평생을 같이 할 종사원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자들은 KT의 주인이라 할 수 없다. 특별근로감독, 7대자연경관, 민간인불법사찰 대포폰제공 사건 등등 회복불능의 KT 이미지 훼손과 이용자 불만을 만들어 놓고 정작 직원들을 과당 경쟁으로 몰아대는 경영자들은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 볼 수 없으며, 처음부터 정도, 책임경영은 그 뜻조차 없었는지도 모른다.

조합원의 품속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러한 적반하장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경영행태를 바로 잡아, KT가 본래의 국민기업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밀알이 되고자 한다.

전주대/비전대 청소 노동자들이 투쟁을 마치고 복귀하면서 한 귀에 박힌 조언으로 같음하고자 한다.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지 말라, 싸우지 않으면서 힘들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정윤모 집행부는 총사퇴해야 한다!!

지난 2012.5.21.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무법천지 kt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2011년도 기준 1조4천억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자칭 국내IT산업을 선도하는 KT에서 이석재 회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죄로 고용노동부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2012.5.10.자로 송치된 것이다.

민주적 정통성이 취약한 정윤모집행부는 올해 2월 한달 동안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kt특별근로감독에 대해 2012.2.3.자 성명서에서 “근거 없는 왜곡 제보에 의존해 편향적인 특감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우려...(중략)... 몇몇 소수에 의한 사실무근의혹 제기만으로 또 다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대규모 특감을 실시하는 것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부정하는 것이며, 2만 5천여 KT 조합원의 희망을 꺾는 행위...(중략)... 금번 특감은 국내 IT산업을 선도하는 KT의 경영의지는 물론 조합원의 사기 저하와 업무마비,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중략)... 노동부는 이번 특감으로 인해 KT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명예가 심각히 실추 되었음을 깊이 인식하기를 바라며 또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노동부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라고 발표하여, 회사측 홍보실에서 나온 성명서인지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조합원들의 웃음거리가 된 바 있다.

사실, 민영화 이후 kt에서 일상화되었던 무급휴일근로, 긴급출동비 및 출장비 미지급, 연차휴가 반납 등의 불법행위는 철저히 노동조합의 비호와 묵인 방조 속에 진행돼 왔음을 우리 조합원들은 모두 알고 있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시간외수당 등 33.1억원을 6,509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지사에 대해 수개월치를 조사한 결과가 이렇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임을 감안하고 전체지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면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의 임금채권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많은 조합원들은 추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되자 정윤모집행부는 이에 대해 꿀먹은 벼어리 처럼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3년치 전체에 대해 당연히 전사적 범위에서 노사합동실태조사를 요구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일괄지급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지나간 과거는 묻지마라’ ‘앞으로만 적발되지 않으면 된다’ 는 식으로 불법 비리 낙하산 경영진을 비호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민간인불법사찰의 증거인멸 목적으로 청와대에 제공된 서유열 사장의 불법대포폰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만약 조합원이 불법대포폰을 제공하였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는가? 아마도 윤리경영실은 즉시 해임조치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을 것이다. 불법비리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한통속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정윤모집행부는 지난 3년간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김구현집행부의 전철을 똑같이 밟을 것인가? 마치 노동조합 간부의 위치가 특권을 누리다가 퇴직하여 사익(私益)을 보장받는 자리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합원들은 불안하다. 노동조합이 교섭을 한다고 하면 조합원들은 우선 걱정부터 한다. 이번에는 노조가 또 무슨 양보를 하고 조합원들을 힘들게 만들것인지...

지난 3년간 고과연봉제도입, 민주노총 탈퇴, 불법정치 후원금 보수정당 제공, 국내 단일기업 최대규모(5,992명) 정리해고, 팀별성과급제도입, 전환배치 등으로 조합원들을 무한경쟁으로 고통과 죽음속에 빠뜨린 김구현을 비롯한 전직 주요간부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정년까지 몇년이 남아 있었음에도 2011년12월말 명퇴하고 계열사로 옮겨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정윤모집행부는 과연 김구현집행부와 다른점이 있는가?

혹시 다른점이 있다면 총사퇴로서 조합원들에게 사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 결단의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조합원에게 유익하다!

2012. 7. 25.
kt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준)

소식보고 / 단신

- 김윤환 조합원의 채용을 빌며 후원을 기다립니다.

수도권강북본부 강북지부 지부장과 초대 민주동지회 의장을 역임하신 김윤환조합원께서 일년째 간암투병중이십니다. 현재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지방에서 요양 치료중이십니다. 김윤환조합원의 빠른 채용을 위하여 민주동지회에서 작은 정성을 모으고 있으니 조합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우체국 010017-02-567572 황운곡

- 해고자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 해 서울지하철노동조합와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의 해고자들을 대거 복직시켰습니다. 길게는 12년 동안 해고자였다 복직하신 분이 있다 합니다. 현재kt에도 노동조합활동관련 해고자가 4명이나 있습니다. 얼마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회사가 복직이행을 안하고 500만원을 내면서까지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는 전북본부의 원병희 조합원과, 역시 전북본부의 강순문 조합원, 2003년 회사의 비인간적인 상품강매에 대해 투쟁하다 해고된 대구본부 김치수 조합원, 그리고 2008년 노동조합위원장 후보로 나왔다 두번째로 해고된 조태욱 조합원 등 민주동지회 활동으로 해고된 분들입니다. 그들도 kt조합원이며 자식을 키우며 생활하는 노동자입니다. 있으나마나한 노조가 아닌 민주노조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의 정성어린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06-21-0978-067 류방상

문화

우리는 kt 정규직노동자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개선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kt의 또다른 직원인 협력업체 비정규직처럼, 우리 아이들은 비정규직으로만 취직이 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그 실천을 고민해봐야 할 책임이 있어 소개합니다.

비정규직

(책세상, 2009.4)

지은이 장귀연

비정규직의 확산은 자본주의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인간의 사회에서 자연적인 것이란 없다. 더 많은 이윤을 얻어내려는 기업 경영자들의 전략,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법과 정책의 입안, 노동자들의 고통과 희망, 이런 것들이 얽히고설키며 비정규직이라는 현상이 생겨나고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어쩌면 정규직과 구분해 부르는 비정규직이라는 말도 아예 없어질지 모른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어떤 일자리나 고용 방식이든, 또 어떻게 노동을 하든 중요한 것은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임무이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이다.



투쟁 보고 - 국회앞 1인 시위

민주동지회는 2012.7.9.부터 국회의사당 정문과 새누리당앞에서 이석재 서유열 국정조사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태 책임지고 낙하산 경영진은 퇴진하라!

국민통신기업으로서의 kt의 자부심에 먹칠을 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였다. kt휴대전화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불법적인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t 전산시스템에 접근한 해커들은 지난 2월부터 가입자 870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용요금제 등의 정보를 빼돌렸고 이를 텔레마케팅 조직에 팔아넘기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태가 있기 전에도 지난 3월에는 kt협력업체의 직원이 불법 프로그램으로 20만건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심부름센터 등에 넘긴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었다. 그런 사태가 있었음에도 이번에 다시 kt는 가입자의 절반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는데도 5개월 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이번에 발생한 kt의 고객정보유출사태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kt에 포진해있는 무능한 낙하산 경영진에 의해 진행되어 온 불법, 부실 경영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본다. 작년과 올해만 하더라도 제주 7대 경관투표에 대한 국제전화 사기논란이 있었으며,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은폐하기 위한 '대포폰'을 kt홈부문 사장이 직접 개설해준 사실이 폭로되어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경영진부터 앞장서서 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동안 코앞에서는 고객정보유출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kt경영진은 작년에 2G 서비스 강제종료, 올해 삼성스마트TV차단 사태 등 고객들의 서비스이용권을 무시하는 듯한 경영행태로 고객들의 불만을 키워왔고, 결국 LTE경쟁에서 3위 사업자로 전락하는 수모를 자초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해서 민영화된 kt가 그동안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의 통신권익은 나 몰라라 해온 행태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민영화된 kt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마케팅용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소디스'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하다가 개인정보 침해시비를 불러일으키며 과장금까지 부과받으며 해당 사업을 중단했던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성에만 혈안이 되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은 투기자본에 대한 과도한 배당으로 빠져나가 국부유출 논란까지도 불러왔다. Kt를 재공영화하여 국민들의 통신권익을 보호하고 통신비인하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더 설득력을 더해가는 이유이다.

이번 고객정보유출사태의 또 다른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kt노동자들이기도 하다. 민영화 이후 강제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에 시달리며 결국 작년, 올해 자살과 과로사로 인한 직원들의 사망이 이어져 kt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인권 현황이 알려진 바 있다. 그런 상황에 이번 정보유출사태에 따른 고객들의 불만은 오로지 일선현장의 kt직원들이 감당해야 되는 뭉으로만 돌려지고 있는 것이다. 벌써부터 일선 지사에 대한 보안점검 강화 등을 통해 직원들을 옥죄면서 마치 이번 사태의 원인이 직원들의 보안의식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인 양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흐름이 kt내부에서는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 경영진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노동조합은 이번에도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직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을 할 곳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번 고객정보유출사태의 총체적 책임은 단기적 수익성에만 눈먼 채 불법, 부실경영을 일삼아온 kt 경영진에게 있다고 본다. 따라서 kt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이번 정보유출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한 kt내부 직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되어 온 불법적이고 부실, 무능한 경영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되었다. 불법, 무능 경영의 화룡점정이라고 할 만한 고객정보유출사태를 계기로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낙하산 경영진은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한편 이를 계기로 kt를 다시 국민기업으로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